

합성수지 「수출추전제」실시

LDPE · PP 등 수출질서문란 · 가격덤핑 방지위해

LDPE, HDPE, PP 등 합성수지 수출이 추전제로 전환됐다.

상공부는 91년 하반기 이후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공급과잉이 심각해지고, 수출에서도 국내업체끼리 경쟁, 가격이 낮아지고 수출질서가 문란해지자 92년 1월1일부터 합성수지 수출을 추전체로 전환, 과당경쟁을 막기로 했다.

이에따라 합성수지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한국 석유화학공업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대상 품목은 LDPE, L-LDPE, HDPE, PP, PS, ABS 등 6개이다. 공급과잉이 심하지 않은 PVC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국내 합성수지 업체들은 지난해 초부터 국내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 합성수지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경쟁업체의 거래선 감식, 가격 덤핑 등 무절제한 수출경쟁을 자행, 비난을 받아 왔었다.

한편 지난해의 품목별 수출량은 LDPE 8만9404톤(로칼 포함), HDPE 21만6911톤, PP 27만9843톤, PS 38만3983톤, ABS 15만1928톤, PVC 24만9812톤 등으로 추정됐다.

<화학저널 1992/1/1>